



친구의 잘못된 요구도 들어주어야 할까?



우리가 묻고

민서는 제 단짝 친구예요.
그런데 민서가 은영이와 다투었다며,
저더러 은영이와 놀지 말라고 해요.
친구의 잘못된 요구도 들어주어야 하나요?



키케로가 답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친구를 위해 옳지 않은 일도 함께해야 한다고 오해하고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도의에 어긋나는 것은 친구에게 요구해서도 안 되고, 요구받더라도 들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친구가 선택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친구로서 솔직히, 필요에 따라서는 엄하게 충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고를 하는 것도 충고를 받는 것도 진정한 우정의 특징입니다. 우정에는 아첨과 아부와 맛장구보다 더 큰 해악이 없습니다. 한쪽은 바른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쪽은 거짓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정이 아닙니다. 만일 친구가 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도의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덕적 의리

← 키케로(Cicero, M. T., 기원전 106~기원전 43)

고대 로마의 철학자
《우정에 관하여》 지음.

